

# 우방과 연대 강화·세일즈 외교... 尹대통령, 두 마리 토끼 잡기

### G7·나토 정상회의 견제에 한국 '포괄적 안보차원' 원자력 수출 등 다양한 경제 분야 협력 방안 논의 한·일 정상회담 불발엔 "대화할 주제 못 찾았다"

**<1면에서 계속>**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부터 사흘간 강행군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확정된 정상회담은 모두 14개"라며 "이번 순방의 본 목적인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 회담을 비롯한 나토 사무총장·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등 면담 2건, 양자회담 9건, 한미일 다자회담 1건, 스페인 경제인 오찬 간담회 1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反)중반러 정책 선호와 관련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과 한국의 반중반러 정책 선회 가능성은 전혀 무관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나토 30 동맹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전통 우방국으로 이들과 가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참가국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며 특히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들과의 포괄적 안보 기반 구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24일 출근길에 나토 정상회의의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원자력 수출(체코·폴란드·네덜란드) △반도체(네덜란드) △방위산업(폴란드) △재생에너지(덴마크)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복안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데 이어 조만간 주(駐)나토 한국대표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나토와 한층 더 밀착해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와 포괄적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윤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10국 회담' 강행군

윤 대통령은 28일 니스(프랑스)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첫 일정으로 공식 행보

를 시작으로 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뒤 마드리드공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참석한다.

29일에는 이른 시간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와의 면담 후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 등 3국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국가와는 반도체 및 원자력, 청정에너지 협력 등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대 안보정상회담에 대해 약 30여분간 심도깊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2006년 한·나토 글로벌 파트너 관계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현황을 평가한 후 복합적 국제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언급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의에선 정상들의 짧은 연설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해당 시간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상임위원장, 캐나다 정상, 루마니아 정상 '풀 아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녁엔 동포 100명을 초청한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체코 정상회담, 영국 존슨 총리와 양자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원자력 협력 등을 포함한 각종 경제 협력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으로 이후 스페인 경제인 오찬 간담회를 열고 스페인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들과 한국·스페인 경제 협력 방안을 도의한다.

한편으로 29일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4년9개월 만에 개최될 예정인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국 공조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 공동세션에서 3분간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을 비난하고 비핵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다만, 30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



(왼쪽부터)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다.

뉴스

으로 짧게 예정된 만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미 동맹국 네트워크 강화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 '국내정치'의식·과거사문제 발목' 한·일 정상회담 무산

해빙무드로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한·일 관계 개선 여지도 사라졌다. 일본이 내달 10일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양국 정상이 함께하는 회담을 배제한 것이다. 우경화 일색의 보수적 지지층을 의식해 한국과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는 것에 대해 수동적 입장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풀 아사이드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전에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눴던 적이 아직 없다"라며 "아무리 서서 풀 아사이드를 한다고 해도 얘기할 주제가 있어야 한다. 언론에 대답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한일정상회담 불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냉각된 양국 관계는 이듬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와 8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기시

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전 이 같은 상황을 알렸는데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독도 해양조사등을 문제 삼아 고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여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 질서 유지에 방점을 둔 것이지 중국 등 특정국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영향력 확장에 대처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 지역 주요 나토 파트너국을 이번 회의에 초청한 것도 나토가 이들과 함께 중국 대응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실제 미국 고위당국자는 22일 나토 정상회의 사전 전화브리핑에서 아시

아-태평양국가의 나토회의 참석에 대해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를 둘러싼 파트너십을 어떻게 활성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어떻게 우리가 중국에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연일 각을 세우는 중이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 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에 대해 "양쪽이 '제로섬 게임'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과 같은 안보 관련 문제들은 한국에 중국이 걸어놨던 '레드라인'인데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이어 "중국 입장에서 미국 밀착 행보에 다양한 언사를 내놓을 수 있지만 노골적 경제 보복은 힘들 것이고 요소수 사태처럼 은밀한 경제보복은 추진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중국의 기조에 대해 정부는 지속해서 고 반중국 기조가 아님은 분명히 했다. 안보실 관계자는 "초청받았을 뿐(나토의) 집단방위 실천과 상관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와 자유에 대한 위협인데 힘 모아 대처하는 것이 반중이라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hyang@skyedaily.com

www.papercorea.co.kr

## 폐지, 쓰레기가 아닙니다

쓰레기로 생각하고 버리는 박스·현책·잡지·신문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소중한 자원이 되어 새 쇼핑백·새 포대지·새 신문이 됩니다  
재생지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자원순환 선도기업, 페이퍼코리아!  
자원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더 건강한 친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생활 속의 친환경-페이퍼코리아  
**PAPER COREA**

STEP 1 가정, 사무실 분리 배출  
STEP 2 수집 및 선별  
STEP 3 원료공정  
STEP 4 제지공정  
STEP 5 재생지 완성  
STEP 6 제가공 공정